

## “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 ... 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4개 출입국기관, 6월 14일까지 총력 대응 -

6월 12일(금)과 13일(토)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관람하는 외국인이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 세계 팬들이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부산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 4개의 출입국기관에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 (4개 출입국기관)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소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은 심사인력 140명, 김해공항 8명, 김포공항 7명, 부산항 3명의 인력을 보강(연장근무와 지원근무)하여 출입국심사를 지원하고, 공항별·항공편별 출입국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혼잡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한민국을 찾는 전 세계 케이(K)-팝 팬들이 공항만에서 신속성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심사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35)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용	(02-2110-4045)